

착한짓만 하고 살자.

저는 '알라딘'이라는 영화를 보고 '자파'라는 캐릭터에 대해 소개할겁니다.자파는 알라딘에 나오는 술탄의 보좌관이다.자파는 영화가 상영되는 동안 성격이 거의 변하지 않는 평면적인 캐릭터입니다.자파는 자신이 아그라바의 공주인'자스민'과 결혼해 아그라바에 술탄이 되고싶어합니다.하지만 술탄이 되는 과정이 건전한 방법은 아니고 술탄이 되기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습니다.사람을 살해하고 마법지팡이로 마법을 부리기도 합니다.

알라딘의 공간적배경은 '아그라바'라는 나라이고 시대적 배경은 9~10세기로 추정하고 있다.그리고 알라딘의 주인공에는 '알라딘'이라는 도둑, '자스민'이라는 아그라바의 공주,아그라바 술탄의 보좌관인 '자파'과 램프 속의 요정'지니'가 주인공으로 나온다.전체적인 내용은 알라딘이 도둑질을 하는 도중 자스민을 만나고 자스민에게 반해 왕궁에 찾아갔다.그후 왕궁에서 나올때 자파를 만나게 되고 자파는 신비의 동굴에서 마법 램프를 가지고 나오면 용서를 해주겠다고 약속했다.그래서 램프를 찾고 나가려다 자파에게 빼앗겼지만 알라딘의 애완원숭이인 '아부'가 램프를 다시 빼앗았지만 동굴에 갇히게 된다.그리고 알라딘은 첫번째 소원으로 동굴을 나가게 해달라고 해줬지만 램프를 비비지 않아 소원 개수가 줄지는 않았고 알라딘,아부,지니, 마법양탄자는 동굴을 나오게 됐다.그런 다음 알라딘은 자스민을 만나고 싶어 첫번째 소원으로 왕자가 되게 해달라고 했다.아그라바의 법종 공주는 왕자와만 결혼을 해야한다는 법이 있다.그래서 새로운 나라인 아바브와의 왕자인척 했다.그렇게 자스민과 알라딘은 같이 시간을 보내고 자파는 알라딘을 의심한다.그리고 자파는 알라딘을 여러차례 위협하게 만들고 그와중에 소원 하나를 더 사용했다.그후 알라딘과 자스민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알라딘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간다. 그때 자파는 알라딘의 램프를 빼앗았다.

나는 지금의이야기부터가 자파의 성격이 가장 잘 드러난다고 생각한다.자파는 램프를 통해 술탄이 되고 전의 술탄인 자스민의 아빠를 감옥에 넣으라한다.하지만 자스민은 왕궁의 신하'하킴'에게 아버지를 감옥에 넣지말라고 설득하고 자파는 두번째 소원으로 세상에서 가장 썩 마법사가 되게 하고 마법사가 됐다.그후 신하를 모두 없애고,자스민의 아버지의목을 조르고 알라딘을 눈이오는 추운지역으로 보냈다.지니는 마법양탄자에게 알라딘에게 가라고 한다.그런다음 알라딘과 자파가 다시 만나고 알라딘은 자파에게 넌 영원히 이인자라고 말했다.그 말에 화난 자파는 마지막 소원으로 지니보다 썩 세계에서 가장 썩 존재로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그러자 자파는 가장 강한 존재로 변했지만 램프속으로 갇히게 된다.그리고 알라딘은 마지막 소원으로 지니를 자유롭게 만들어 달라고 해,지니는 원하던 사람이 됐다.그리고 영화는 끝났다.나는 이 영화를 통해 착한일을 하면 착한일이 돌아오고 나쁜일을 하면 나쁜일이 결국 나에게 온다는 것을 알았다.나는 마지막 부분인 자파가 램프에 갇히는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았다.왜냐하면 자파가 나쁜일을 저지르때마다 자파에게 벌을

내리고 싶었기 때문이다.그런데 마지막에 자파가 램프속에 갇히면서 끝나니 속이 시원했다.나도 알라딘같이 세가지 소원을 빌 수 있다면 어떤 소원을 빌을지 생각해 본적이 있다.나는 알라딘 같이 짧게 생각하지 않고 길게 생각을 해봤다.나도 지니의 생각과 같이 돈에 대해 생각했다.그런데 의문점이 생겼다.소원으로 하루에 한번씩 얼마를 몇년동안 달라고 하면 지니는 그 소원을 들어줄지 아니면 들어줄지라도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세가지 소원을 빌어 지니가 가서 중간에 끊길것인지이다.또 나는 자신의 이익뿐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생각했다.그중에는 우리의 문명을 발전시켜 달라고와 환경오염을 해결해 달라는 것이 있다.

이 영화는 전체적으로 나쁜말도 나오지 않고 잔인한 장면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모든사람이 재밌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또 우리에게 착하게 살라는 조언을 주는 것 같다.왜냐하면 착한일을한 알라딘은 자스민과 관계가 좋아졌다.물론 초반에는 도둑질을 하는 도둑이었지만 영화가 갈수록 알라딘은 나쁜일을 하지않게 개선을 했기 때문이다.또 나쁜일을한 자파는 마지막에 램프에 갇혔고 다시 동굴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이다.